DAOL 다올투자증권
30 Apr. 2026

DAOL Daily Issue

김지현 시황/파생 | jeehyun12@daolfn.com

4월 FOMC와 유가 상승 투자 아이디어

SUMMARY

- 금리 동결하며 시장 예상치 부합했으나 1) 연준 내 인플레 압력 우려 확대 시그널, 2)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세 영향에 의한 물가 상승 언급되며 매파적으로 해석
- 4월 중 확인된 소비 지표 호조, 그러나 유가 상승분이 반영된 명목 소비의 상승 및 세금 환급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5월에 소비지표, 대형 소매기업 실적 코멘트에서 소비 둔화 여부 확인할 필요
- 비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에도 개인 및 금융투자 유동성이 지수 견인 중. 테크 조정 가능성 염두에 두고 유가 100달러 재돌파로 인한 유가 상승 투자 아이디어로 1) 대체 에너지, 2) 명목물가 상승 수혜 제시

● 4월 FOMC 시장 예상치 부합, 에너지 가격 상승 불확실성 언급

기준금리 3.5~3.75%로 3연속 동결 결정, 친트럼프 마이런 위원만이 금리인하 주장.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음에도 매파적으로 해석될 여지 존재. 1) 3명의 위원이 성명서에 통화 완화 기조(easing bias)를 시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며 연준 내 인플레이션 압력 우려 확대 시그널로 해석, 2)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관세 영향으로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유가가 30~60일 내로 안정되지 않으면 성명서 문구를 바꿀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

지난 3월 점도표에서 올해 1회 금리인하를 전망했음에도 Fed Watch 상 12월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은 회의 전후로 상승. 내년 12월까지 1회 인하 가능성이 30%대인 동시에 6월에는 1회 인상 가능성이 36%로 양분. 전일 미 증시는 FOMC에서의 매파적 발언 가능성을 선반영하며 조정 진행. 미국채 2년물 금리 3.9%대까지 상승, 10년물 금리 역시 8거래일 연속 상승한 브렌트유 및 인플레이션을 불안요인으로 반영하며 4.4%대까지 오버슈팅

-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정책 금리가 적절한 수준에 있고 중립금리가 3.5%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이에 상당히 근접한다고 밝힘
- 고용과 실업률은 변동이 없었으나,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최근의 전 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반영한 결과라고 직접적으로 언급
- 파월의장은 “위원회는 아직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앞으로 30~60일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 문구를 완전히 바꿀수 있다”고 언급
- 또한 모든 공급 쇼크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동시에 끌어올릴 잠재력이 있으며, 교과서적으로는 오일쇼크가 단기에 그치겠지만 인플레이션 2% 상회, 관세쇼크, 에너지 가격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금리인하를 생각하기 전에 에너지쇼크가 진정되는지, 관세문제가 진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

5/15 파월 임기 만료를 앞둔 마지막 회의로 향후 케빈 워시 발언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파월 의장은 의장 임기 만료 후에도 2028년 1월까지 일반 이사로 연준에 잔류 결정. 마이런 위원 대신 케빈 워시 후보가 의장으로 합류하게 되고 트럼프 임기 동안에는 연준위원 구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로, 현재로써는 금리 동결 기조가 급변할 가능성은 낮음

● **유가 상승은 경제지표와 기업실적에 반영 중, 5월 소비에 주목**

4월 중 확인된 소비 관련 지표 모두 호조를 보인 영향으로 금리인하 가능성은 이미 축소된 상태였음. 미국 3월 소매판매는 MOM +1.7% (예상 1.4%, 전월 0.6%)로 예상치 상회. 주유소 판매가 MOM +15.5% 증가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13.1%)을 상회하며 최고 월간 증가율을 경신한 점이 헤드라인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는 점은 부정적. 그럼에도 변동성이 큰 자동차와 휘발유, 건축자재, 음식서비스를 제외한 핵심 소매판매 역시 MOM 0.7% (예상 0.2%, 전월 0.5% -> 0.6%로 상향조정) 증가했다는 점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완화를 뒷받침. 4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49.8(예상 47.6, 전월 53.3).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92.8(예상 89.0, 전월 92.2)로 모두 예상치 상회

소비가 견조한 가장 큰 요인은 OBBBA의 세금 환급 효과. 미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 27일까지 누적 세금 환급금은 약 2,221억달러로 YOY 13.6% 증가. 즉 세금 환급으로 인한 추가 소득이 유가 상승을 상쇄하고 있으나 이 효과는 곧 소멸되고 물가 상승 압박은 여전하다는 것으로 해석.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유입될 가능성 존재하므로 5월에는 관세 및 세금 환급 효과가 소멸되는 4월 소비 지표, 5월 중순 경 월마트, 코스트코, 타겟 등 대형 소매기업 실적에서 유가 상승 영향 및 마진 방어 코멘트 확인 필요

● **금리 동결 및 인플레이션 민감도 높은 환경에서 유가 상승 투자 아이디어**

현재 연내 금리 동결 가능성 우세, 유가 상승 등 비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에도 유동성과 개인 및 금융투자 수급이 지수를 견인 중. 전일 국내증시는 상승 마감했으나 유가가 100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다시 민감도가 높아질 가능성. FOMC 회의 직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실적 발표되며 빅테크 모멘텀 반영 종료, 지난주부터 종목 장세 전개되며 후공정 장비, MLCC까지 주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테크 조정 가능성 감안할 필요

유효한 투자 아이디어는 1) 대체 에너지, 2) 명목물가 상승 수혜로, 전자의 경우 2차전지, 원전(건설), 태양광 순으로 주가 탄력 강할 가능성. 후자의 경우 블룸에너지 실적 서프라이즈 및 LS ELECTRIC의 수주 공시, UAE의 OPEC 탈퇴 이슈에 주목. 데이터센터 밸류체인은 전력 설비, 조선 엔진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가격전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나 밸류에이션 부담은 존재. 반대로 밸류에이션 부담 덜한 빈집 측면에서, 화학제품, 기초소재의 급격한 판가 상승으로 정유화학 섹터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기록 중. 향후 UAE 이슈로 촉발될 중동 패권 변화로 장기적으로 유가가 하향 안정될 시나리오 선반영되며 섹터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

4월 FOMC 정책금리 동결(3.75%)

• 연준, 4월 FOMC 정책금리 3회 연속 동결(3.75%)
: 다만 소수의견 4인 출회(1992년 이후 최대)
: 25bp 인하(스티븐 마이런 6연속 인하 주장)
: 동결 결정에는 찬성했으나 이번 성명문에 완화 편향(easing bias)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닐 카시카리, 베쓰 해맥, 로리 로건)

• 성명문 매파적
: 경기 확장속도 평가 solid 유지
: 일자리 증가 평가 변경 remained low → remained low, on average
: 인플레이션 평가 상향 somewhat elevated → elevated, in part, reflecting the recent increase in global energy prices
: 중동사태 평가 상향 uncertain → high level of uncertainty

• 기자회견 예상했던 수준
: 물가 상방 리스크 인정
: 다만, 현 시점에서는 여전히 전망이 불확실하며 조금 더 지켜보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기조를 재확인
: 적어도 이번 회의에서 인상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추후 인상이 필요할 시 신호를 주겠다고 시사
: 여전히 인하 경로에 있음을 재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부분도 존재

파월 기자회견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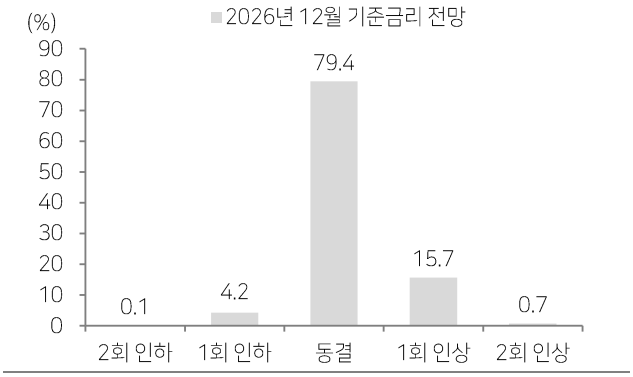
1) 의장 임기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법무부 조사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이사로 근무할 것
2) 이사로서는 낮은 자세를 유지할 계획이며 차기 의장은 케빈 워시 1명
3) 참가자들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했던 것은 아니며 현재는 상황이 전개되도록 지켜보기에 좋은, 적절한 위치에 있음
4) 추후 인상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신호를 줄 것이고 인하 또한 마찬가지
5) 현재 기준금리(3.75%)는 중립금리에 꽤 가까운 수준(중립금리 3~4% 상단에 위치)
6) 정책이 의미 있게 긴축적이라고 볼 근거는 많지 않다고 생각
7) 3월까지 12개월 간 PCE 물가는 3.5% 올랐고 유가 상승이 상당한 영향을 미침
8) 중동 분쟁 등으로 경제 전망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며, 아직은 지켜보고 기다려야 할 것
9) 단기적으로 유가가 전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겠지만, 이후 영향은 현 시점에서 아직 불확실
10) 팬데믹 회복기와는 달리 노동시장은 지금 인플레이션의 원천이 아님
11) 관세의 인플레이션 상방 영향은 추후 2분기에 걸쳐 둔화될 것으로 예상
12)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여전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가 존재
13)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해 견조하고 회복력이 강하다고 평가
14) 금리 가이던스(포워드 가이던스) 대해 활발한 논의를 가졌고, 결국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다음 회의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Fig. 1: 2026년 4월 FOMC 성명문 변화

	2026-01-29	2026-03-19	2026-04-29
정책결정	기준금리 동결(3.75%)	기준금리 동결(3.75%)	기준금리 동결(3.75%)
경제	(경제 상황) economic activity has been expanding at a solid pace. Uncertainty about the economic outlook remains elevated (고용) Job gains have remained low, and the unemployment rate has shown some signs of stabilization	(경제 상황) economic activity has been expanding at a solid pace. Uncertainty about the economic outlook remains elevated (고용) Job gains have remained low, and the unemployment rate been little changed in recent months	(경제 상황) economic activity has been expanding at a solid pace. Developments in the Middle East are contributing to a high level of uncertainty about the economic outlook (고용) Job gains have remained low, on average, and the unemployment rate has been little changed in recent months
물가	Inflation remains somewhat elevated	Inflation remains somewhat elevated(좌동)	Inflation is elevated, in part reflecting the recent increase in global energy prices
정책결정	(결정배경) The Committee seeks to achieve maximum employment and inflation at the rate of 2 percent over the longer run. The Committee is attentive to the risks to both sides of its dual mandate. The Committee is strongly committed to supporting maximum employment and returning inflation to its 2 percent objective (금리 결정) The Committee decided to mainta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3-1/2 to 3-3/4 percent. In considering the extent and timing of additional adjustments to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the Committee will carefully assess incoming data, the evolving outlook, and the balance of risks	(결정배경) The Committee seeks to achieve maximum employment and inflation at the rate of 2 percent over the longer run. The implications of developments in the Middle East for the U.S. economy are uncertain. The Committee is attentive to the risks to both sides of its dual mandate. (금리 결정) The Committee decided to mainta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3--1/2 to 3--3/4 percent. In considering the extent and timing of additional adjustments to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the Committee will carefully assess incoming data, the evolving outlook, and the balance of risks	(결정배경) The Committee seeks to achieve maximum employment and inflation at the rate of 2 percent over the longer run. The Committee is attentive to the risks to both sides of its dual mandate. (금리 결정) the Committee decided to mainta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3-1/2 to 3-3/4 percent. In considering the extent and timing of additional adjustments to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the Committee will carefully assess incoming data, the evolving outlook, and the balance of risks
정책방향	-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implications of incoming information for the economic outlook(좌동) - would be prepared to adjust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 as appropriate if risks emerge that could impede the attainment of the Committee's goals(좌동) - The Committee's assessments will take into account a wide range of information, including readings on labor market conditions, inflation pressures and inflation expectations, and financial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s(좌동)	-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implications of incoming information for the economic outlook(좌동) - would be prepared to adjust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 as appropriate if risks emerge that could impede the attainment of the Committee's goals(좌동) - The Committee's assessments will take into account a wide range of information, including readings on labor market conditions, inflation pressures and inflation expectations, and financial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s(좌동)	-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implications of incoming information for the economic outlook(좌동) - would be prepared to adjust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 as appropriate if risks emerge that could impede the attainment of the Committee's goals(좌동) - The Committee's assessments will take into account a wide range of information, including readings on labor market conditions, inflation pressures and inflation expectations, and financial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s(좌동)
투표자	(동결) Jerome H. Powell, John C. Williams, Michael S. Barr, Michelle W. Bowman, Lisa D. Cook, Beth M. Hammack, Philip N. Jefferson, Neel Kashkari, Lorie K. Logan, and Anna Paulson (25bp 인하) Stephen I. Miran, Christopher J. Waller	(동결) Jerome H. Powell, John C. Williams, Michael S. Barr, Michelle W. Bowman, Lisa D. Cook, Beth M. Hammack, Philip N. Jefferson, Neel Kashkari, Lorie K. Logan, and Anna Paulson, Christopher J. Waller (25bp 인하) Stephen I. Miran	(동결) Jerome H. Powell, John C. Williams, Michael S. Barr, Michelle W. Bowman, Lisa D. Cook, Philip N. Jefferson, Anna Paulson, and Christopher J. Waller (동결, 성명문 내 easing bias의 포함 반대) Beth M. Hammack, Neel Kashkari, Lorie K. Logan (25bp 인하) Stephen I. Mir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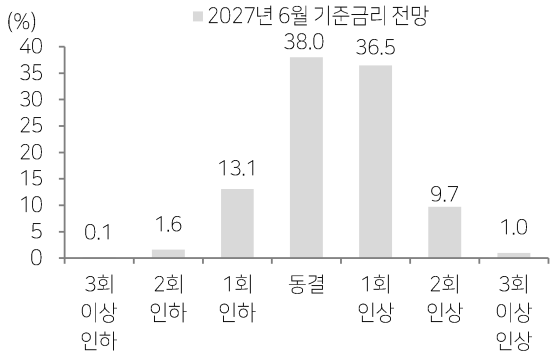
Source: Fed, 다올투자증권

Fig. 2: Fed Watch 2026년 12월 기준금리 전망
: 연내 동결 가능성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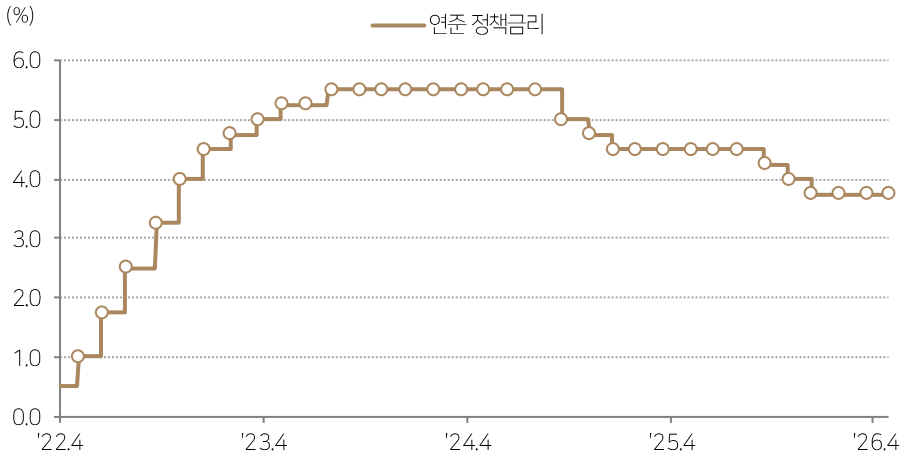
Source: CME Fed Watch, 다올투자증권

Fig. 3: Fed Watch 2027년 6월 기준금리 전망
: 내년 6월 금리 인상 전망 등장



Source: CME Fed Watch, 다올투자증권

Fig. 4: 연준 기준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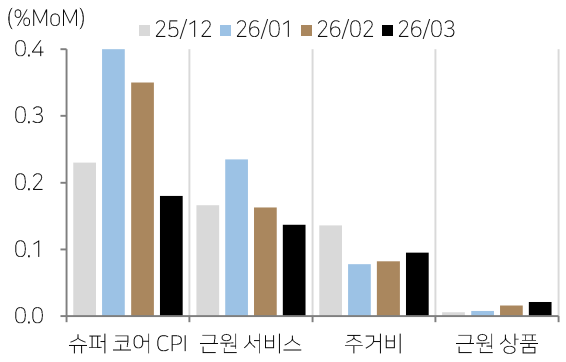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Fig. 5: 시장의 정책금리 전망 기대 (2026. 4월 FOMC 이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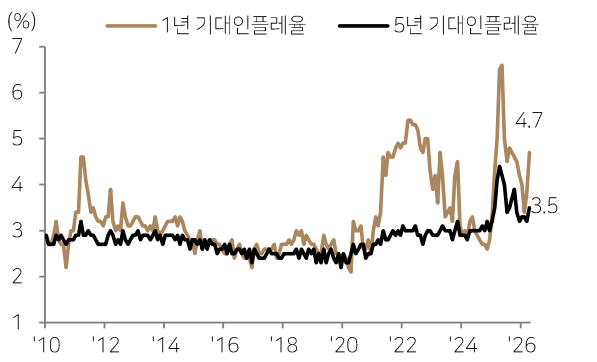
	CME FEDWATCH TOOL - CONDITIONAL MEETING PROBABILITIES							
MEETING DATE	250-275	275-300	300-325	325-350	350-375	375-400	400-425	425-450
2026-06-17	0.0%	0.0%	0.0%	1.0%	99.0%	0.0%	0.0%	0.0%
2026-07-29	0.0%	0.0%	0.0%	1.0%	99.0%	0.0%	0.0%	0.0%
2026-09-16	0.0%	0.0%	0.0%	1.2%	98.8%	0.0%	0.0%	0.0%
2026-10-28	0.0%	0.0%	0.0%	1.2%	96.6%	2.2%	0.0%	0.0%
2026-12-09	0.0%	0.0%	0.0%	1.0%	85.5%	13.2%	0.3%	0.0%
2027-01-27	0.0%	0.0%	0.0%	0.9%	76.8%	20.7%	1.6%	0.0%
2027-03-17	0.0%	0.0%	0.2%	16.9%	65.0%	16.7%	1.3%	0.0%
2027-04-28	0.0%	0.0%	0.1%	9.4%	43.3%	38.4%	8.2%	0.6%
2027-06-09	0.0%	0.0%	0.6%	11.2%	43.1%	36.8%	7.8%	0.5%
2027-07-28	0.0%	0.0%	1.3%	13.3%	42.7%	34.9%	7.3%	0.5%
2027-09-15	0.0%	1.2%	12.6%	40.8%	35.4%	9.0%	0.9%	0.0%
2027-10-27	0.0%	0.8%	8.4%	30.4%	37.4%	18.7%	3.9%	0.4%
2027-12-08	0.5%	5.0%	20.6%	34.3%	27.0%	10.5%	2.0%	0.2%

Fig. 6: 미국 CPI MOM 증가율
: 에너지 외 항목에서는 인플레 압력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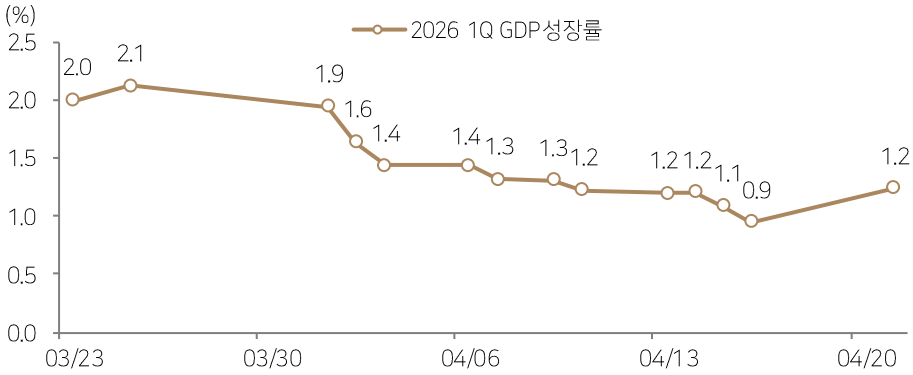
Source: CME Fed Watch, 다올투자증권

Fig. 7: 미시간대 1년, 5년 기대인플레이션
: 소비심리지수는 예상치 상회했으나 기대인플레 동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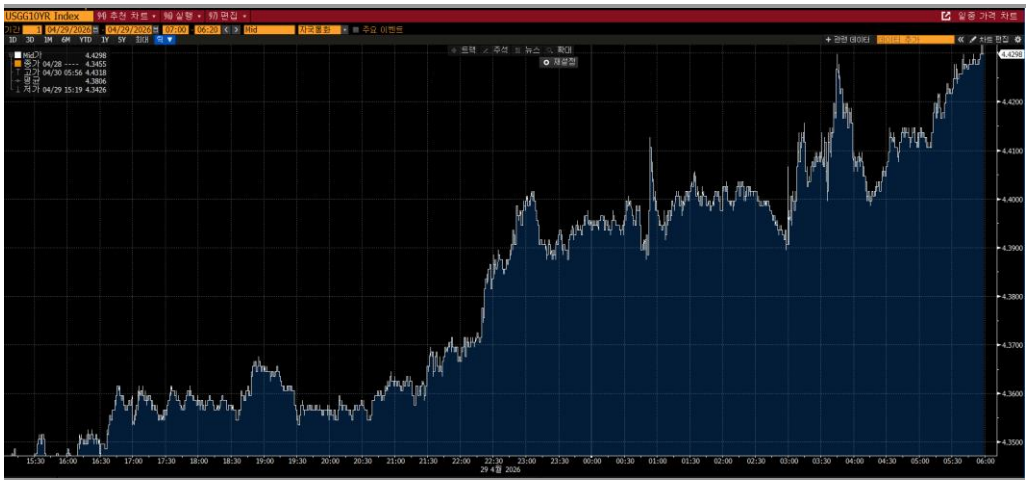
Source: CME Fed Watch, 다올투자증권

Fig. 8: 애틀랜타 FED GDPNOW



Source: Atlanta Fed, 다올투자증권

Fig. 9: 장중 미국 10년물 금리 등락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그 배우자는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OTF'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